



강진군청 여자축구 동호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에 있습니다” ‘강진군청 여자축구단’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된 축구팀이다.

지난 2005년 12월에 ‘스포츠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강진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여성 공무원들의 여가선양과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됐다. 현재 회원 수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여직원 등 29명. 단순한 아마추어 축구동호회 차원을 넘어 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다.



매주 월·수요일 두 차례 일과 후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군 공설운동장에 모여 이용국(위생팀장) 감독과 김영우(세무팀) 전문코치의 지도로 킥 연습과 드리블 등 기본기를 익히는 한편 4:1 패스게임, 편을 갈라 20분씩 연습 게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여고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박연화(스포츠기획팀)씨가 지난해 8월 팀에 합류하면서 전력도 탄탄해졌다. “처음에 업사이드가 뭔지 몰라서 계속 공을 물고 가서 골을 넣었는데 업사이드라해서 창과 했습니다”(김선화·축산팀)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며 뛰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애들도 축구교실에 보내는 등 축구 마니아가 됐습니다”(윤진희·투자유치팀) 대다수가 ‘아줌마’인 회원들은 직장가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기량을 쌓고 있다. 처음에는 ‘여자가 뭐 축구냐?’ 하던 남편들도 축구경기가 열리는 날은 휴가를 내고 응원을 올 정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축구교실에 다니게 됐다. 직장 동료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가족들도 방 청소와 설거지 등을 도와준다.

◇그라운드 누비는 여공무원=회원들은 축구를 시작한 후 자신의 변화로 ‘자신감’을 손꼽는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또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생각만큼 살은 잘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특히 동료 간에 어려울 때 서로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백경자 회장, 문미정, 김선희, 김현주, 김인숙, 김현지, 윤진희, 이만영씨, 김영우 코치, 김금화, 박나연, 박연화, 윤영주, 배정아, 이미란씨.



# 도발적(?)인 그녀들의 ‘축구사랑’

### 자치단체 최초 여성공무원 결성

### 그라운드 누빌팬 우먼파워 배가

### 강진 스포츠 메카 홍보역할 특목

등고 친자매처럼 의지하고 있을 정도로 동료애가 남다르다. 단체경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합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업무에 많은 시간을 뺐다 보니 축구를 통해 가족을 다시금 바라보게 돼 더욱 잘하려는 마음이 배어나고, 상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게 된다고 한다. 양은희(여성복지팀) 부회장은 “축구는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푸른 잔디를 누비노라면 힘들고 서운했던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 골’ 넣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해진다”고 말했다. 강진군청 여자축구 회원들은 자체 훈련을 통해 개인기를 다듬고 타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통해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창단 직후인 2006년 3월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여성부장관배 축구경기에 처녀 출전했을 때는 축구 경기규칙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했지만 상대팀이 배려해 주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광양에서 열린 제 89회 전국체전 전남도 일반부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체전에 출전하는 11개팀 가운데 동호회 성격을 띤 팀은 강진군청 여성 축구단이 유일했다. 충남 천안의 일화 천마실업팀과 예선 첫 경기로

붙어 아슬게도 5대 2로 패했다. 상대팀이 전문 실업팀인지라 열심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그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첫 골’에 목말라했던 터에 2골이나 터지며 회원들의 기쁨은 배가됐고 자부심을 갖게 됐다. 전문 체육인이 아닌데도 전국체전까지 출전하게 돼 회원들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평했다. 더욱이 지난해 실업팀인 현대제철팀과 경기를 했는데 동호회원들과 나이 차이가 10~20년에 달해 선수들이 ‘이모’나 ‘어머니’로 불려 격제지함을 느끼기도 했다 한다. 지금까지 공식경기에 5차례 참가했다. ◇대망의 목표 ‘1승’=이제 회원들의 바램은 짜릿한 ‘1승’의 기쁨이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누구보다 강하다. 나아가 축구를 통해 강진을 스포츠 메카로서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강진군은 지난 2006년 봄 천연 잔디구장(3면)과 인조 잔디구장(4면)의 시설을 구비하고 한국여자 축구 연맹전 개최 등 급격한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섰다. 강진은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으로 매년 수십 개의 외지 팀이 전지 훈련장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용국(위생팀장) 감독은 “올해는 개인기를 연마하고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경자(교육발전팀) 회장은 “매달 한차례씩 다른 팀과 친선경기를 통해 동호회 기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1승을 목표로 열심히 푸른 그라운드를 누비고, 스포츠 메카인 강진을 널리 알리는 홍보우먼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강진=남철희기자 choul@



2008.9.27시행 중앙선관위(광주/전남/북) 수석합격

합격을 많이 시킨 학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안다!!

#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경찰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 농업직/ 기술직/ 전직종(독립부 수업)

7월 25일 국가직/ 8월 26일 광주/전남지방직 대비 - 8주과정 **종합반/ 단과반 개강 5월 1일**

7급 핵심정리및 문제풀이

www.hanbitgosi.co.kr

## 한빛 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34-0234

광주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062)227-9500

### 회춘

발기부전, 도루, 전립선 비대 현안(양기식) 부작용無 3일지속

근술(단초도루해결) 무료선물

20회분 66,000원

H-P 010-6218-1249

### 경찰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순경공채

남-1차: 966명	2차: 214명
여-1차: 40명	2차: 47명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

특채

- 전의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남성희소식

※ 미제정품(비.사.르)

1/2특용 72시간효과 조루, 발기 100%효과

10정, 20정, 30정 안동 **최저가 판매**

문의전화 010-9147-8071